

2024. 1. 31.(수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월 3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

청년사업반장	이정희	02-2133-4299
청년금융팀장	권혁영	02-2133-4301
담당자	최성원 (이자지원)	02-2133-6593
	최수연 (신용회복)	02-2133-6582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s://youth.seoul.go.kr">https://youth.seoul.go.kr</a>	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7쪽

### ‘이자부터 신용회복까지’ 학자금 대출 부담 서울시가 줄여준다

- 올해 청년 3만 5천명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, 작년보다 2,500여명 확대
- 학업으로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 목적
- 학자금대출 상환 중인 경우 이자지원, 학자금대출로 신용유의자된 경우 신용회복 지원 신청
- (학자금 대출) 2.1.~3.8. (신용유의자 해제) 2.1.~10.18.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

# 취업을 못 해 대출이자 상환여력이 없었는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덕분에 마음 편하게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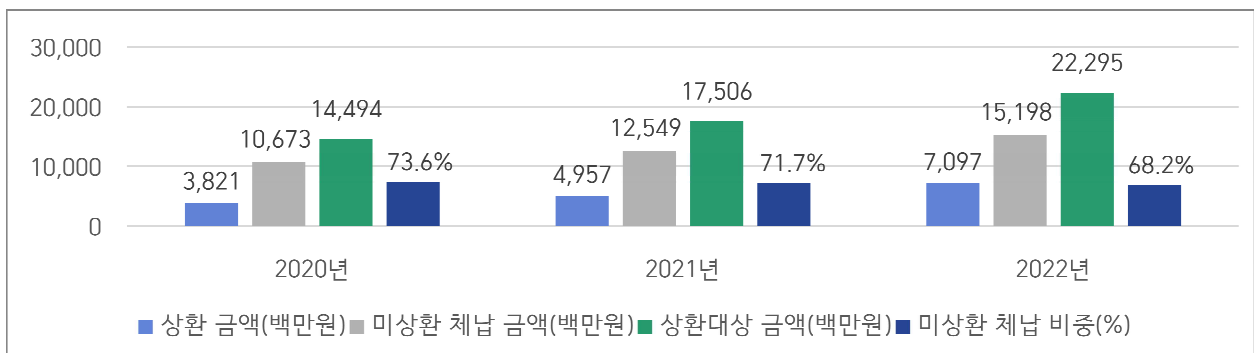
#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고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감소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.

- 서울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. 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약정 후 채무금액의 일정부분(5%)을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 신용회복도 돕는다.

□ 서울시가 2월 1일(목)부터 상반기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1만 8,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 올해 지원규모는 총 35,000명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은 모집 예정이다. 신용회복 지원자도 10월까지 모집한다.

□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은 학업 유지를 위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.

○ 최근 3년간('20년~'22년)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(ICL)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. '22년 기준 상환 대상 금액은 약 223억 원 규모며, 이중 미상환 체납 비중이 약 68%를 차지했다.



(출처 : 국세통계포털)

○ 또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사회금융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학자금대출로 인한 전체 신용유의자 중 77%나 된다.

※ 서울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('23.12월 기준/한국장학재단)

구 분	전체 신용유의자	만 39세 이하 신용유의자	청년 비중
인원(명)	1,706	1,314	77.0%
채무액(백만원)	14,792	10,255	69.3%

<올해 청년 3만 5천명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, 작년보다 2,500여명 확대>

-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지난해 32,485명보다 2,500여명 늘어난 35,000명(상반기 18,000명, 하반기 17,000명)이 대상이다. 예산도 전년대비 2억여원이 늘어난 38억 6,000만원이다.
  - 지난해 시는 총 32,485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32억 6,400만원을 지원했다.
    - ※ 상반기: 15,865명/16억 6,700만원, 하반기: 16,620명/15억 9,700만원
  
-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학(원)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한다. 지난해 하반기인 7~12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.
  - 신청자 중 본인 또는 부모가 두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소득 1~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,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.
  
-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신청은 2월 1일(목) 오전 10시부터 3월 8일(금)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(<https://youth.seoul.go.kr>)에서 하면 된다.
  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(원) 재학생, 휴학생, 5년 이내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 매년 2회(상·하반기)로 나누어 신청·접수를 받는다.

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과 졸업생은 각각 이를 확인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,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월 1일(목)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.
-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이자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(kosaf.go.kr)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.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이외에도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.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필요한 채무금액의 5%를 서울시가 재단에 입금하는 방식이다.
- 시는 지난해 총 115백만원을 지원해 총 309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. 예산 1억 2천 500만원이며 선착순 모집이다.
-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해제를 원하는 서울 거주 만 19~39세 청년은 2월 1일(목) 10시부터 10월 18일(금)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(youth.seoul.go.kr)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
-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는 신청 전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 지원상담센터(☎ 1599-2250)에서 확인해야하며, 기 지원자(2018년~2023년)는 올해 지원 받을 수 없다.

-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“청년들이 고액의 학자금과 소득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받고,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”며, “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□ 2024년 1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홍보물

서울특별시  
SEOUL METROPOLITAN GOVERNMENT

SEoul  
M SOUL

2023 하반기 (7월-12월) 서울시 대학(원)생  
**학자금대출  
이자 지원**  
2월 1일(목) 10:00 ~ 3월 8일(금) 18:00

**지원대상**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거주 대학(원) 재학생(휴학생) 및 5년 이내 졸업생  
2019.2.1. 이후 졸업자, 수료자 포함

**신청방법** 청년몽땅정보통 youth.seoul.go.kr(온라인 접수)

**제출서류** 대학(원) 재학 및 졸업증명서 **필수**  
가족관계증명서(다자녀인 경우) **선택**

※ 지원대상 및 기준·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

□ 2024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홍보물



# 학자금대출 신용회복(신용유이자 해제)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

- **지원대상**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이자
- **대상연령**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
- **접수방법** 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에 온라인 신청
- **지원내용**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(채무액의 5%) 지원 및 신용유이자 등록 해제



'24.2.1.(목) 10:00 ~ '24.10.18.(금) 18:00